

# 베이비부머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이해: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 에세이 분석

## Understanding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among Baby Boomers: Analysis of Essays from "80,000 Hours Design Competition"

김유진\*, 정가윤\*\*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Yujin Kim(yjkim@knu.ac.kr)\*, Kayoun Chung(kayoungchung@gmail.com)\*\*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에 제출된 에세이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가 갖고 있는 노후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1년 첫 공모전에 참여한 인원 중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하는 62명분의 에세이 자료를 주제중심분석(thematic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베이비부머 참여자들은 공모전을 통해 노후준비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있었다. 둘째, 이들이 계획하는 노후는 세 가지 모습으로 도출되었다: 1) 나 자신에게 집중된 삶, 2) 일과 관계, 여가가 조화롭게 연계된 삶, 3) 사회환원적인 창출을 꿈꾸는 공동체의 삶. 셋째, 참여자가 꼽은 필수 노후준비 사항은 건강관리와 배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참여자들은 노후준비에 있어서 성실하지만 약간 강박적인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과 노후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안에 도움이 되는 지원 방향을 제공하였다.

■ **중심어** : | 베이비부머 | 노후준비 |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baby boomers' perception of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by analyzing essays from 80,000 hours design competition. The researchers were able to access to 62 baby boomers' essays and used thematic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mpetition enabled participants to re-conceptualize the meaning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Three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in the participants' designing their future: 1) life focused on themselves, 2) life in which work, relationship, and leisure are balanced, 3) community life which take social responsibility. All the participants stressed health and learning as key factors in preparing for later life. They also showed almost obsessiveness toward their own effort to be diligent in order to achieve their idealistic later life.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eparation for later life among baby boomers are discussed.

■ **keyword** : | Baby Boomer | Preparation for Later Life | 80,000 Hours Design |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3년 12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1월 23일

수정일자 : 2014년 01월 13일

교신저자 : 정가윤, e-mail : kayoungchung@gmail.com

## I. 서론

21세기 우리는 호모 현드레드(Homo Hundred)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대수명 백세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길어진 생애 후반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을 축복이라기보다는 걱정으로 여기는 시선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 및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 사회 노년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1][2]. 여기에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함께 더욱 심화될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화는 길어진 노년기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3][4]. 베이비부머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만큼 절대적인 규모면 뿐 아니라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상당한 세대이다[5]. 은퇴와 함께 본격적인 생애 후반기에 접어드는 베이비부머들의 삶은 곧 노인 인구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6].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부양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스런 관심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7].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경제적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의 길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에 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보내게 될 호모 현드레드 시대의 노년기는 이전 세대 노년의 삶과 여러 모로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8][14][15]. 노후 시간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에 따라 노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정해진다고 볼 때[9], 베이비부머가 인생 후반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노년기에 대한 모델이 부재하기 때문에[10] 노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11].

본 연구는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에 제출된 에세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베이비부머가 갖고 있는 노후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은 2011년 가을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그리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의 공

동 주최하여 개최한 이래 연례로 시행되고 있다. ‘8만 시간’이란 은퇴 후 20년을 산다는 가정 하에 수면과 식사 등을 제외한 여가 시간이 8만 시간이라는 것으로 가토 히토시라는 작가의 『穢만 시간의 비밀』에서 처음 언급된 것이다.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은 인생 후반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다루어야 할 과제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 노년의 삶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삶의 후반기에 할 일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공모전의 특성상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베이비부머들이 노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드문 자료이다.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을 대단위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본 자료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에 대한 내부적 관점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연구 자료로서의 에세이는 개인적 기록물(personal documents)의 일종으로서 당대 개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모습을 반영하는 자료이다[12]. 본 연구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과 노후준비에 대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에 도움이 되는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베이비부머 선행 연구 동향 및 이론적 배경

### 1. 노년기에 접어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현황과 특성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태어난 인구집단이다. 이들이 모두 노년기에 접어드는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4.3%가 노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3]. 초고령 사회의 도래와 함께 사회복지와 보건, 경제, 소비문화 등 다양한 정책 분야의 중심에 서게 될 베이비부머에 관한 연구가 급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이유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

을 갖고 있고, 성공 및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하며, 젊은 세대보다 노동의 가치를 높이 여기는 것으로 보여진다[16]. 생활양식 측면에서도 이전 세대에 비해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고, 자녀 중심이라기보다 부부중심으로 노후를 보낼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부모 세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뛰어난 베이비부머들은 노후를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여긴다[7]. 또한 노년의 삶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자기실현을 이룰 시기로 보고 있다고 여겨진다[13]. 한편, 베이비부머의 노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경쟁적 사회생활에 익숙한 베이비부머에게 노화란 탈락과 좌절을 의미하기에 노후를 편하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16]. 그렇지만 베이비부머들은 활동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노인 세대와는 다른 노후를 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8][14][15]. 베이비부머가 보내게 될 호모 헨드레드 시대의 노년기는 이전 세대 노년의 삶과 여러 모로 다를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실태 및 의식을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의 노후에 대한 준비의식은 높은 편이지만 구체적인 준비는 미흡한 편이다. 예를 들어, 2012년 베이비부머에 대한 2차년도 패널 조사에 의하면[16], 조사 대상자의 69.1%는 은퇴 후와 노후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 노후준비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 베이비부머는 다른 세대에 비해 경제와 건강 영역의 노후준비는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여가와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7]. 이들의 노후준비는 특히 연령, 성별, 학력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노후준비에도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전기 베이비부머(1955-59년 출생)의 노후준비는 후기 부머들(1960-63년 출생)의 노후준비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16][18].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시장경제의 변화로 인해 본인 스스로 노후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듯[19],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과정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완전 은퇴한 베이비부머는 4.7%이며, 많은 부머들은 원 직장에서 은퇴한 뒤에도 재취업, 창업 등 가교 일자리(bridge job)에 종사하는 것이다[14]. 베이비부머는 계층의 고착화가 가시화된 세대로서, 현재의 경제상황이 노년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노년기의 빈부 양극화 현상의 악화가 우려된다[14][16].

이들 선행연구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은퇴를 대비한 재무준비 차원에서 접근하며 성공적 노화를 위해 노후생활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외부자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진단하고 있기에 이들이 갖고 있는 노후에 대한 인식과 기대 및 계획하고 있는 노후의 모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노년 문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한편, 기존 노인의 삶보다 열악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는 베이비부머가 갖고 있는 노년기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준비를 살펴보는 본 연구와 같은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다.

## 2. 연구 자료로서의 에세이 분석

에세이는 개인적 기록물(personal document)의 일종으로서 특정 주제 또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12]. 최근 이와 같은 개인적 기록물을 사회과학 연구 자료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20-23]. 특정 또는 자유 주제에 관해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는 에세이는 글쓴이의 배경과 관심사를 반영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감상과 성찰을 드러내는 자료인 만큼 그 시대의 개개인과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12][20][22]. 특히, 공모전 에세이는 해당 주제와 자격요건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드러내는 만큼, 문화현상을 반영하는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22]. 이에 따라 관련 주제에 대한 참여 당사자의 인식을 살펴보는 작업을 토대로 하여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실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는 것이다[21].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머들이 갖

고 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자료인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 에세이는 바로 21세기 호모 현대레드 시대의 베이비부머가 노후생활에 대해 어떠한 기대와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드문 자료이다. 본 연구는 공모전 에세이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실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론

#### 1. 자료에 대한 이해 및 참여자의 특성

본 자료는 2011년 처음으로 개최된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 에 응모된 에세이이다. 연구진은 학술연구 목적을 가지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자료 공유를 요청하였고, 연구를 위한 목적만으로 자료를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응모순으로 기재된 응모자의 연령과 성별이 포함된 리스트 및 에세이 복사본을 받을 수 있었다. 응모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았다. 본 공모전의 응모자격은 만 40세 이상의 성인남녀(당시 1971. 12. 31이전 출생)로 공모전의 응모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 은퇴 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글로 작성
- 과거 경험, 현재의 상황, 미래의 내 모습을 적절히 반영하여 작성

2011년 10월 24일부터 2011년 11월 21일 한 달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접수를 받았고 10월 초부터 신문, 방송, 관공서 등을 통해 참여 홍보가 이루어졌다. 공모전에 참여한 인원은 총 220명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그중에서 한국 베이비부머세대에 해당하는 1955년에서 1963년생에 해당하는 62명분의 에세이 자료이다. 베이비부머 남자 35명, 여자는 27명으로 구성된 응모자의 연령을 보면, 2011년 당시 만 48세 8명, 49세 4명, 50세 7명, 51세 8명, 52세 10명, 53세 3명, 54세 5명, 55세 8명,

56세 9명이었다. 에세이에 드러난 응모자의 직업은 공무원, 회사원, 사업, 사회복지사, 강사, 교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이 응모하였으며 주부도 9명이 참가하였다. 응모자 5명 정도는 자신의 직업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았다. 62명 중 이미 명예퇴직하였거나 은퇴한 사람이 17명이고 이 중 재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구상중인 사람은 9명이었으며, 나머지 8명은 재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 2. 자료의 정리와 분석

Brown과 Clark(2006)이 정리한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에세이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24]. 귀납적 탐구방법으로서 중심주제 분석 방법은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갖춘 질적 자료분석의 기본이다. 중심주제분석을 통해 자료의 주요 패턴에 관해 기술하는 것뿐 아니라 주요 중심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암묵적인 의미(latent meaning)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중심주제 도출과정의 타당성을 수치화하기 위하여 베이비부머 참여자 중 몇 명이 중심주제의 내용을 에세이에 밝혔는지에 대한 빈도를 표기하였다. 이와 같은 빈도 표기를 통해서 중심주제로 선정한 내용이 공모전 에세이에 드러난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표한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준비 인식에 관한 연구이기에 주요 단어 수를 분석하기보다 참여자들의 일반적 생각을 대표할 수 있는 인원 수를 표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공모전에 제출한 62개의 에세이의 복사본으로 A4용지 292장(바탕 글자크기 10)분량이었다. 본격적인 분석은 에세이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개별 에세이를 잘 기술할 수 있는 핵심어를 기본 코드로 끌어내고 기본 코드들 간의 관계를 범주화하여 의미를 가진 코드를 도출하였다. 의미 있는 코드간의 의미 관계를 미시적인 면, 그리고 거시적으로 해석하면서 아래와 같은 중심주제와 세부내용을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1 과정에서는 연구진이 공모전 자료를 개별적으로 내용 분석하여 공통으로 끌어낸 코당내용을 5

가지로 종합하였다. 연구자간에 불일치를 보였던 코딩 항목은 버리거나 다른 항목으로 합쳐서 합의점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도전적인 삶,’ ‘은퇴 후 과도기의 모습’ 등의 불일치 항목들이 있었는데 도전적인 삶은 분석 1의 ④에 속할 수 있었고 은퇴 후 과도기의 모습은 노후 생활에 적응과정에 더 적합한 내용이어서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분석 2 과정에서는 분석1의 내용분석을 세분화한 것으로 분석 1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베이비부머의 특징 및 그들의 노후 준비의 특징으로 언급된 내용을 고려하면서 분석하였다. 양적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에서는 코딩 시 연구 참여자의 글을 하나의 개념으로 유형화하기보다 여러 내용들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코딩도 가능하다. 즉 분석 2에서 ③여가라고 코딩된 내용이 또한 ⑦경제, ⑤사회참여로 코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코딩 방식은 코딩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⑩과 같이 명시되지 않은 암묵적인 내용도 코딩 내용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 분석을 통한 베이비부머의 노후 준비를 최대한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름지어서 (naming process) 중심주제로 도출하고 코딩간의 관계를 살린 세부내용들을 도출하였다[표 2]. 중심주제와 세부 내용들은 대부분의 자료에서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나타난 특성이다. 특히 중심주제 ② ‘계획하는 노후의 모습’에서 분석2의 자아실현과 봉사가 통합되어 세부내용 ‘나에게 집중된 삶’으로 이름지어지고 분석2의 여가, 건강, 경제가 참여자의 글에서 한 흐름으로 언급되는 경향을 설명하고자 세부내용 ‘일, 관계, 여가가 연계된 삶’으로 이름짓고 또한 분석2의 사회참여-공동체, 봉사를 연결하여 세부내용 ‘사회환원적인 창출을 꿈꾸는 공동체의 삶’으로 이름지었다.

표 1. 중심주제 도출 과정

분석 1	분석 2	중심 주제
①공모전에 대한 생각 (11명) ②노후에 대한 시각/노후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 (22명) 53.2%	①노후의 개념 (23명) ②노후준비의 개념 (33명)	① 공모전을 통한 노후준비 의미 재발견 (33명) 53.2%

③노년기의 역할모델 (16명) 지난 삶을 통한 앞으로의 방향 (9명) ④노후의 모습/소망하는 바 (35명) 96.7%	③여가(50명), ④봉사(10명), ⑤사회참여-공동체(20명), ⑥건강(55명), ⑦경제(25명), ⑧자아실현(6명)	② 베이비부머들이 계획하는 노후의 모습(60명) 96.7%
⑤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 노후에 필요한 것 (62명) 100%	⑨목록으로 나온 것 (24명) ⑩명시적이지 않은 암묵적인 것에 대한 분석 (정서 등 암묵적 내용으로 수치화할 수 없음)	③ 기본에 충실한, 그러나 강박감이 깃든 준비(62명) 100%

연구 결과를 기술하기 위해 인용할 사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세부내용이 잘 표현되어져 설명력이 강한 사례로 선정하였다. 대표적인 개별 사례 인용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목소리로 노후의 삶에 대한 기대와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표 2. 중심주제와 세부내용

중심 주제	세부 내용
① 공모전을 통한 노후준비 의미 재발견	• 누구에게나 필요한 노후준비 (33명) • 노후준비를 통해 삶의 의지적 희망발견(22명)
② 베이비부머들이 계획하는 노후의 모습	• 나에게 집중된 삶(41명) • 일, 관계, 여가가 연계된 삶(55명) • 사회환원적인 창출을 꿈꾸는 공동체의 삶 (45명)
③ 기본에 충실한, 그러나 강박감이 깃든 준비	• 베이비부머들이 꿈은 노후의 필수 준비 요소(62명) • 쉽지 않은 노후준비과정 (암묵적 내용 수치화할 수 없음)

### 3. 연구의 엄격성과 진실성

동료 집단의 조언 및 지지를 통해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편견에 의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두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한 후 도출된 코딩항목을 서로 비교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두 연구자간 85% 코더간 신뢰(inter-coder agreement)가 이루어졌으며 평생교육, 노인심리학 연구자 등 세 명의 외부 동료 연구자(peer review)로부터 분석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 IV. 연구 결과

### 1. 공모전을 통한 노후준비 의미 재발견

### 1.1 누구에게나 필요한 노후준비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에 응모한 베이비부머 62명 중 33명은 공모전을 통해 노년기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다. 보통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만이 노후를 준비한다는 선입견을 넘어서서 누구나 노후 준비가 필요하며 이 과정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비록 33명이 공모전 글에서 직접적으로 공모전을 통해 노후준비의 보편성을 언급했지만 공모전에 참여하는 대부분이 암묵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공모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후대책도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은퇴 계획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은퇴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삶의 묘약처럼 우리를 살게 해주는 힘이 되어준다.. 그렇기에 은퇴 계획은 삶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남 56세, 회사원)

### 1.2 노후준비를 통해 삶의 의지적 희망 발견

노후준비는 베이비부머들에게 희망을 찾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를 공모전 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참여자는 22명이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예 퇴직, 그리고 가시화된 노화과정 등을 겪으며 위축된 참여자들은 8만 시간을 계획하면서 의외로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음을 인식하며, 삶을 다시 시작할 힘을 얻고 있었다. 이렇듯 공모전의 참여자 대부분은 노후준비를 계획하면서 글에 희망과 의지를 담고 있었다.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의 제목을 보면서 내가 큰 착각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 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20년 후의 남은 시간 8만 시간이라도 제대로 디자인해야 시류에 휘말리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여 53세, 사회복지사)

[앞으로] 잘 살려면 외롭지 않은 노후와 건강이 필요

하겠다는 의지적 희망을 갖게 되었다(여 49세, 자영업)

## 2. 베이비부머들이 계획하고 있는 노후의 모습

### 2.1 나에게 집중된 삶

베이비부머들은 노년에 자신만을 위한 삶을 꿈꾸고 있었다. 그동안 안팎으로 의무적인 역할에 치중하여 자신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한 것,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희생을 해왔다는 피해의식을 토로하며 노후에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갖고 있다. 이를 직접적으로 글에 언급한 참여자는 41명으로 노후를 자신에게 집중한 진정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활동에서도 자기가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인생의 제 1막에서 대중의 일원으로서 연기했다면 제 2막은 스스로 연출하고 주연하는 배우가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삶이 연출에 매달린 연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연출을 잡고 있는 줄잡이가 되는 것이다(남 56세, 은퇴)

인생의 황금기인 40대에 IMF를 만났다.. 악몽의 10년을 보내고 나서 잠깐 숨을 돌리나 했더니 내 앞에 은퇴가 기다리고 있다.. 결국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남 54세, 건축가)

내 안의 장점과 적성과 내가 잘하는 일로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게 더 값지고 보람되게 [나의 노후를] 활용할 수 있단 생각이 든다(여 52세, 주부)

### 2.2 일, 관계, 여가가 연계된 삶

그동안 삶의 각 영역이 분리되었었다면, 참여자들은 앞으로의 생활은 일과 여가, 그리고 관계가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었다. 62명의 참여자 중 55명의 참여자가 직접적으로 여가, 건강, 경제의 통합의 다양한 모습을 글에서 언급하고 있었다. 노후준비가 생계만을 위한 삶이 아닌 취미와 소득이 연계된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나아가 편안

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물리적, 정서적 공간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었다. 여가를 통해서 일과 사회적 관계가 통합되어지는 노후를 꿈꾸고 있었다.

앞으로 능력이 된다면 자그마한 시골분교에 사시사철 다르게 피어나는 초목들 심어놓고 오전에는 자전거 타고 [아내와] 둘이서 카메라 둘러매고 평범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찍어서 전시도 하면서...오가는 손님들께 차도 한잔 대접하는 그런 공간을 꾸미고 싶습니다(남 53세, 직업모름)

아내와 카페를 운영하며 틈틈이 글을 쓰고 문학이나 예술관련 모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노년층의 모임에는 할인과 무료공간지원을 해주고 싶다...노년이 가진 여유로움과 편안함은 가게를 운영하고 사업하는데 있어 고객들을 유치하는 이 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남 49세, 엔지니어)

노년에 무언가 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계를 위한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에 빠지는 취미 등 여가활동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남 56세, 명예퇴직 후 재취업 준비 중)

### 2.3 사회환원적인 창출을 꿈꾸는 공동체의 삶

베이비부머 참여자들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노후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마음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삶을 계획하고 있다. 45명의 공모전 참여자가 생활공동체 구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거공동체, 생활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사회에 보탬이 되는 무언가를 창출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관계 유지에 중점을 두어 가족 공동체에 의존하기보다 이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새로운 생활공동체의 구성을 꿈꾸고 있었고 이것이 사회적 보탬과 힘이 되리라 믿고 있었다.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자... 자기 인생의 주인공

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나눔을 실천하고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생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마을이면 좋겠다... 주말에는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마을이면 자연스럽게 지속적 인 공동소득도 가능할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것이다(남 54세, 건축가)

베이비부머들은 노후의 삶에서 나이가 들수록 끊임 없이 자신의 역량을 확장하여 가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51세 남자 회사원은 은퇴 후 12평대의 약선원을 만들어 75세에는 200평 규모의 약선농원을 추가하고 80세에 또 100평 규모의 수련원을 늘려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50세 남자 영농중심 사회적기업을 계획 중인 사람은 참교육을 할 수 있는 농업학교를 65세까지 만들고 나무심기와 관리를 배울 수 있는 숲 학교를 72세까지 추가하고 그 후에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박물관 학교까지 81세에 추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단순히 자신의 삶만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공동체의 삶을 계획하고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의 예비 노인 세대들을 위해 농촌형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함께 하는 자립공동체의 삶을 꿈꾸고 있다...노인가구들이 도시에서 일자리, 여가를 찾기보다 빈집과 유휴농지가 많은 농촌 가구를 활용한다면 노후의 고독감 해소, 일자리 창출, 식량자급자족, 건강증진 효과로 인한 노인의료비 감소 등 장점이 정말 많을 것 같다. 농촌형 노인 영구임대주택에서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과수, 꽃 심기 등의 경관 농업으로 관광, 양봉, 도시인에게 휴양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여 49세, 사회복지 관련 종사)

## 3. 기본에 충실한, 그러나 강박감이 깃든 준비

### 3.1 베이비부머들이 꿈은 노후의 필수 준비 요소

62명의 참여자 모두 노후에 꿈꾸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었다. 이와 함께, 취

미를 위한 배움의 필요성에 대해 50명이 언급하였고 재취업 또는 소득창출을 위한 배움의 필요성 또한 25명이 중요시하며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여 날마다 병석에만 누워 있다면 자기 자신도 불행할 뿐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까지도 크게 괴롭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8만 시간 디자인에 건강디자인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남 56세, 명예퇴직).

묻고 또 묻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리라. 배우고자 마음먹으면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공부거리이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벌집 짓기와 표고버섯 재배법에 관심이 간다(남 50세, 직업 정보없음)

### 3.2 씬이 없는 노후준비과정

베이비부머들은 여지껏 살아온 방식대로 성실하게 준비하면 계획이 성취된다는 믿음을 노후생활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베이비부머들이 의존의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만큼 스스로를 체찍질하며 강박적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비록 직접적으로 이를 글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글에서 암묵적으로 강박적 정서가 전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하루도 빠지지 않는 성실성, ‘매순간 노력,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일을 하며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것’ 이라는 표현들에서 베이비부머들의 강박감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노후준비의 과정조차도 치열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노년기에 당연한 과정인 신체 능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자신에 대한 믿음은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노화 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고 이 믿음은 결국 노인 자살과 같은 사회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누구보다 정직, 성실, 근면은 나 자신의 인생관이자 직장관이다. 비록 손이 느리고 일머리가 없는 나에게 현장 일은 힘이 들고 자꾸 회의가 들곤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는 성실성으로 버티고 있다(남 56세, 명예퇴직 후 재취업 준비)

우리의 노후가 기다려지기 위해서는 계획하며 매순간 노력해야 할 것이다(남 49세, 엔지니어)

병약하게 100세를 맞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일을 하며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소박한 꿈이다(여 49세, 사회복지 관련 종사)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제1차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한 베이비부머들이 갖고 있는 노후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살펴보았다. 공모전 에세이라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연령, 성별 및 기타 다른 요소별로(예, 완전은퇴와 재취업 준비자의 차이 등) 노후에 대한 기대와 준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들이 계획하는 노후생활 및 노후준비에 대한 시각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이들을 위한 제2의 인생설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7], 본 연구와 같이 베이비부머의 내부자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연구를 통해 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세이 분석을 통해 밝혀진 이들의 노년에 대한 기대와 준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베이비부머 참여자들은 공모전을 통해 노후준비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있었다. 노후준비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며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려는 의지적 희망을 다지게 된 것이다. 베이비부머 참여자들이 계획하는 노후는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도

출되었다. 첫째, 나 자신에게 집중된 삶, 둘째, 일과 관계, 그리고 여가가 조화롭게 연계된 삶, 셋째, 사회환원적인 창출을 꿈꾸는 공동체의 삶이다.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노후의 삶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이 꿈은 필수 노후준비 사항은 건강관리와 배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자들은 노후준비에 있어서 약간 강박적인 모습을 보인다. 성실하게 준비하면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노후준비에도 스스로를 담금질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에서 보듯이 『8만 시간 공모전』은 노후를 위한 심리적 준비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은퇴 및 노화에 따른 삶의 변화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그러하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성공적 노화’ 또는 ‘활동적 노화’ 담론이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베이비부머 참여자들이 구체적인 노년의 삶을 계획하고 잠재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노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의존적인 노년기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은 활동적이고 성공적인 노년의 이미지에 가려 생의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전에 참여한 베이비부머들은 구체적인 노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노인 세대와 확연히 구분된다. 그리고 이들이 계획하는 노후의 모습은 영국의 사회학자 피터 라슬렛(Peter Laslett)이 제시한 인생 제3시기의 내용과 비슷한 점이 많다. Laslett(1997)에 의하면 보통 은퇴와 함께 시작되는 제3시기의 기간은 가족 부양 등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목적을 추구하려는 특성을 보이는 시기이다 [25]. 또한, 선행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베이비부머들은 활동적인 노후를 꿈꾸며, 노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7][8][16]. 활동적이며 일자리를 원하는 주된 이유는 개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그러한 바람의 이면에는 어느 한쪽에만 치중된 것이 아닌 일과 여가, 그리고 관계가 연계된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가 계획하는 노후에 관한 또 다른 새로운 결과는 이들이 사회환원적 성격의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생각은 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또는 사회공헌일자리 정책의 궁극적 목표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24]. 베이비부머들은 자신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참여와 지역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바람과 욕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본 연구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설계를 마련하는 일이란 고령사회의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26]. 공모전 응모자들이 언급했듯이 노후준비는 단순히 재무적 차원의 준비뿐 아니라 은퇴와 함께 변화하는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을 재정비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만큼 노후준비는 재무, 건강, 심리사회적 관계, 주거 등 다차원적인 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27]. 인생후반기에 들어서기 훨씬 전부터 자기 자신 및 주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심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28]. 하지만 이것도 그러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생애단계별 학습 및 연령통합적인 사회참여문화 시스템을 토대로 개개인의 욕구와 경력분석, 그리고 평생학습과 일자리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정부는 제2차 세로마지 플랜을 통해 노후준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29].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소득과 건강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들이 실현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 다각적이며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2011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통계표, 2012.
- [2] 김형수, 권이경, “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6호, pp.236-245, 2013.
- [3] 정경희, “고령화 시대의 노년기 준비의 의의와 과

- 제”, 보건복지포럼, 제10권, pp.6-14, 2013.
- [4] 이용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53-260, 2013.
- [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2011.
- [6] 조성숙, 서훈, “우리나라 중년 남성과 여성의 노후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2권, 제4호, pp.705-717, 2011.
- [7]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8] 신경아, 한미정, “뉴시니어로서의 베이비붐세대: 은퇴 후 삶에 대한 지향과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콘텐츠 수요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제25권, pp.113-144, 2013.
- [9] 박충선, “노년기의 생활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8권, 제2호, pp.30-46, 1998.
- [10] 정진웅, *노년의 문화인류학*, 한울아카데미, 2006.
- [11] 김종인, 김윤정,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655-664, 2013.
- [12] T. L. Holbrook, “Finding subjugated knowledge: personal document research. Social Work,” Vol.43, No.6, pp.746-751, 1995.
- [13] 신호창, 노형신, “고령화 사회 대비 효과적 고용정책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토대연구: 연령대별 인식차이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일반, 제16권, 제1호, pp.5-40, 2010.
- [14] 변루나, 김영숙, 현택수,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사회참여 지원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4호, pp.315-344, 2011.
- [15] 최인영, 최혜경,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 특성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1호, pp.81-109, 2009.
- [16] 한경혜, *베이비부머 삶의 변화와 지속성, 2010-2012*,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2차년도 보고서,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메트라이프 재단, 2013.
- [17] 오희철 외,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실태 분석 및 미래 보건의료의 사전 대응체계 구축 기초 연구*, 연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보건복지부 용역 보고서, 2010.
- [18] 이소정,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설계 지원서비스의 방향”,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98권, pp.1-8, 2011.
- [19]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박보미, *베이비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20] 이상원, “영화감상 에세이: 대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쓰고 있나”, 사고와 표현, 제4권, 제2호, pp.151-174, 2011.
- [21] 박민정, “대학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 다시 듣고 싶은 수업 에세이 분석”, 인문학연구, 제75권, pp.229-253, 2008.
- [22] 신기혁, “광고공모전: 학생들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언론학연구, 제11권, pp.50-75, 2007.
- [23] G. Forister, E. Jones, and M. Liang, “Thematic analysis of personal statements in physician assistant program admission,” J. of Physician Assistant Education, Vol.22, pp.6-72, 2011.
- [24] V. Braun and V. Clarke,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Vol.3, pp.77-101, 2006.
- [25] P. Laslett,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 [26] 손유미, 이성, *베이비붐 세대 제2인생설계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 [27] C. Bode, D. T. D. de Ridder, and J. M. Bensing, “Preparing for aging: Development, feasibility and preliminary results for an educational program for midlife and older based on proactive coping theory,”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Vol.61, pp.272-278, 2006.

[28] M. M. Rosenkoetter, J. M. Garris, and R. A. Engdahl, “Postretirement use of time: implications for preretirement planning and postretirement management,” *Activities, Adaptation & Aging*, Vol.25, No.3/4, pp.1-17, 2001.

[29] 이원희,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 준비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제10권, pp.1-3, 2013.

### 저 자 소 개

김 유 진(Yujin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BA)
- 2006년 8월 :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School of Social Work(Ph.D.)
- 2013년 현재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Aging in Place, 근거기반실천

정 가 윤(Kayoun Chung)

정회원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BA)
- 2008년 2월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urriculum and Instruction (MA, Ph.D.)

▪ 2010년 3월 ~ 현재 :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가족사회학, 담론분석, 프로그램 개발